

# 철드는 아침

김철통

6월의 상쾌한 아침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우렁찬 발구름소리인양 새 기적과 위훈창조어로 부르는 방송선전차의 노래소리가 굴지의 공업도시 온 함흥시내를 부글부글 끓이는데 우리 집에서는 뜻밖에도 속상한 일이 터졌다.

올해에 소학생이 된 우리 귀염둥이가 글썽 나의 어머니가 상점에서 고르고골라 사온 어린이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지 않는가.

《싫어싫어. 안 신을래.》

《아, 야 철남아, 너 왜 자꾸 그러니? 할머니가 너 공부 잘하라고 사오신건데 이 신발이 얼마나 곱다고 투정질이니, 응?》

아까부터 시계를 들여다보던 안해가 참지 못해 다그어대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그만 사색이 되고 있었다.

《철남아, 이 신발은 함흥시적으로 제일 멋있는 신발이다. 이 신발 만드느라고 구두공장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천성이 고지식한 어머니는 손자를 달랜다는것이 구두에 깃든 사연을 설명하려 했지만 8살의 철부지가 알아들을게 뭐가.

《싫어, 안 신을래...》

가방을 꾸리며 덤덤히 일어서던 나는 하는수없이 철부지녀석에게 눈을 똑 부릅뜨고 말했다.

《너 무슨 응석이나? 할머니가 신으라면 신는거지 곱다곱다 하니까 점점...》

하는데 철부지는 그만 발끈해지는것이 아닌가.

《헉, 아버지는 나빠— 전번에 사준 구두도 있는데.》

순간 나는 말뚝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이런 때를 뭐라고 하던가.

《우리 반 선생님이 증산돌격운동에서 모범학생이 되자면 신발 하나라도 아껴신을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또랑또랑 울리는 철남이의 그 한마디에 온 식구는 못박혀버렸다.

아껴신을줄 알아야 한다...

지금 철남이의 저 깨끗한 목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있는가.

나의 어린 날도, 안해의 어린 때도 그리고 나의 어머니 소꿉시절도 바로 저 깨끗한 정신으로 흘러오지 않았던가.

비로소 나의 눈앞에는 영화나 책으로만 보아왔던 지난날들이, 전 세대가 파감히 넘고 헤쳐온 우리

혁명의 준엄한 년대기들이 우렁이 떠올랐다.

그것은 가랑잎을 덮고 자면서도 조국산천의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를 품에 껴안고 싸운 투사들의 모습이었으며 유격구의 옥토에 씨앗을 묻은 백절불굴의 정신이었다.

사회주의조선이 제국주의떼무리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어떻게 짓부시고있는가를 세상에 대고 똑똑히 보여준 고난의 행군시기 아버지 우리 장군님 추켜드신 백승의 기치를 따라 저 만리대공에 위성을 쏘올리고 현대화의 동음을 울리며 인민은 가슴뿌듯이 절감했다.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절약하고 증산하자.

그렇게 강해진 우리 인민이었고 그렇게 달라진 우리의 생활이었다.

오늘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수 없는 사회주의만복이 온 나라 집집에 물과 공기처럼 찾아들고있으니.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행복의 무아경에만 취한 나는...

도대체 철부지는 누구였는가.

비로소 가슴속에 뜨거운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속삭였다.

철남아, 네 말이 옳다. 아껴야 한다.

선렬들의 피가 스며있고 우리의 땀이 깃들여있는 이 땅의 모든것을 살점처럼 귀중히 여겨야 한다.

그리고 증산해야 한다.

절약만이 아닌 무한대의 증산을...

그러면 우리의 앞날은 이제 얼마나 더 황홀할것인가.

《용타, 내 손주야.》

눈물이 글썽해진 나의 어머니가 귀염둥이를 꼭 껴안았다.

평범한 아침이다.

그러나 결코 평범하기만 하는 아침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맑고 청신한 공기와 새 기운을 복돋아주는 자연의 아침만은 더욱 아니다.

증산돌격운동이라는 시대의 정신으로 때이르게 성장한 귀염둥이가 온 식구를 번쩍 정신차리게 해준 참 좋은 아침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아침이 얼마나 많은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어주신 붉은 화살표를 따라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의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된 내 조국의 아침.

아, 아이들도 어른들도 철드는 아침이여!

창밖에서는 아침해살이 우리 집식구들의 출근길에 뿌려지고있었다.